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9학년도 4월 26일 1교시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은 선택형 답란에, 서·논술형은 서·논술형 답란에 작성하세요.

[1-3, 서술형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뒤뜰 어둠 속에

나뭇짐을 부려 놓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무 한 쪽을 예쁘게 깎아 내셨다.

말할 힘조차 없는지

무쪽을 받아 든 채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는데

환히 드러난 아버지 이마에

흘러 난 진땀 마르지 않고 있었다.

어두워진 산길에서

후들거리는 발끝걸음으로

어둠길 가늠하셨겠지.

불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다시 이어지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 한데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 임길택, ‘저녁 한때’

(나)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불을 쓰옥, 썩 훑아 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앓아누우신 아버지의 약 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 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꾸집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다디달게 핥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예 꼭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훑아 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쓰옥, 썩 혀보다 더 축축이 젖은 눈빛으로 훑아 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 손택수, ‘흰둥이 생각’

1.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가족 간의 은근한 사랑과 포근한 정성이 느껴지네.
- ②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을 여러 가지 심상을 이용해서 표현하였구나.
- ③ 시를 읽은 이가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말하는 이는 현재형 어조로 말을 하고 있구나.
- ④ 아버지가 힘든 노동을 해야 가족이 먹고살 수 있는 각박한 현실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구나.
- ⑤ 가족에게 닥쳐 온 어려움을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극복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어.

2. (가)에 나타나지 않은 심상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 ②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 ③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 ④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⑤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3.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가)와 (나)는 모두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에서 겪은 일을 소재로 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서로 간의 따뜻한 정이 잘 나타나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시적 화자와 행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 ⑤ (가)는 (나)는 모두 특정한 시간적 배경을 통해 평화로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서술형1〉 (가)에서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화자가 추측하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4점)

〈배점〉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각 1점 감점

〈서술형2〉 (나)를 읽는 이로 하여금 순수한 느낌을 받게 하는 이 시의 특징을 쓰시오.(5점)

〈조건〉 ‘-(을/를) -(로/으로) 설정함’ 의 형식으로 쓸 것

〈배점〉 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각 1점 감점

☞ 뒷면에 계속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길'

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점)

- ① 말하는 이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다.
- ② 단정적인 어조로 말하는 이가 기다림의 대상을 확고히 믿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잘 표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용기를 주고 있다.
- 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주위 사람이 있기에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5. ㉠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3점)

- ①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②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 ③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 ④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⑤ 낮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섰는 축석루는 살 같은 광음(光陰)을 따라서 달음질칩니다.

6. ㉠-㉤ 중 상징적 의미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7, 서술형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 남산 아래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더듬거렸으며, 게으르고 생각이 좁았다.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지 못하고 장기나 바둑 같은 것도 할 줄 몰랐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따지지 않고 칭찬을 해도 뽐내지 않았다. 오직 즐기는 것은 책을 보는 일이어서 추위나 더위, 배고픔이나 아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스물한 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의 방은 매우 좁았지만, 동쪽, 남쪽, 서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일 때 그 밝은 빛을 따라 책을 읽었다. 읽지 못한 책을 만나면 즐거워하며 웃었다. 그래서 집안사람들은 그가 웃는 것을 보면, '좋은 책을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 두보의 시를 무척 좋아해서 앓는 소리처럼 웅얼웅얼 읊었다. 그러다가 깊은 뜻을 깨우치면 매우 기뻐하며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기뻐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갈까마귀가 우는 듯했다.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없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자세히 살피기도 하고, 꿈꾸는 사람처럼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간서치' 라고 불렀는데 그도 그 이름을 좋아했다. 그의 이야기를 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붓을 들어 적고 제목을 '간서치전' 이라고 붙였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은 적지 않는다.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읽지 못한 책을 만나면 즐거워하나 책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 괴로워한다.
- ②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③ 책을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전기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술형3>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인공 '간서치' 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쓰시오(4점)

<조건> 20자 이내로 쓰시오.

<배점> 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각 1점 감점

☞ 다음 장에 계속

[8-10, 서술형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것을 본 나는, 이 보배를 손에 넣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욕망에 그만 난생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다네. 나방은 벌써 말라 있어서, 손을 대는 정도로는 형체가 일그러지지 않았어. 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받쳐 들고 에밀의 방을 나왔다네. 그때 나는, 어떤 커다란 만족감 이외에 아무 생각도 없었지. 나는 나방을 오른손에 감추고 층계를 내려오는데 그때, 아래편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어. 순간, 나는 내가 비겁한 놈이란 것을 깨달았다네. 그와 동시에 들기면 어쩌나 하는 무서운 불안에 사로잡혀, 나는 본능적으로 나방을 감춘 손을 그대로 양복저고리 주머니 속에다 찔러 넣었어.

(나) 그때 나는 비로소,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해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지도 않고 나에게는 키스만을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고마웠지. 어머니는 나더러 그만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어. 여느 날보다는 시간이 늦어진 편이기는 했지. 그러나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식당으로 가서 갈색의 두겹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찾아 가지고 와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뚜껑을 열었어. 그리고 그 속에 든 나비들을 끄집어내어 손끝으로 비벼서 못쓰게 가루를 만들었다네.

(다) 하인리히 모어는 핀에 꽃혀 있는 나비 중 한 마리를 상자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날개 아랫부분을 살펴보았다. 그가 말했다. “참 이상하지. 나비를 볼 때만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나비를 다시 제자리에 꽃고 상자 뚜껑을 덮으며 말했다. “잘 봤네.” 약간 딱딱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그 추억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자네의 수집 판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아주게.” 그가 말했다. “나도 어릴 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좀 상했다네. 창피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라) 나는 그에게 내 장난감을 모두 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냉담하게 앉아, 여전히 나를 비웃는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내가 수집한 나비를 전부 주겠다고 했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네가 모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 게다가 오늘은 너의 나비 다루는 성의가 어떻다는 것을 알 만큼은 알았어.” 이제는 아무런 도리가 없음을 알았다네. 나는 아주 나쁜 놈으로 결정이 나고 에밀은 천하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 정의를 방패로 삼아 냉정하고 모멸적인 태도로 내 앞에 버티고 있었어. 그는 욕설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다만 나를 바라보면서 경멸할 따름이었지.

(마) 그리고 혹시 사람의 눈에 띄이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면서 날째게 발을 돌려 층계를 뛰어 올라, 일 분 후에는 다시 에밀의 방 가운데 서 있었지.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뽑아 나방을 책상 위에다 꺼내 놓았지. 나는 그것을 보기 전에 벌써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것쯤은 미리 짐작했었어. 그저 울고 싶은 생각뿐이었지. 아니나 다를까, 나방은 보기 싫게 망그러져서 앞날개 하나와 더듬이 한 개가 떨어져 버렸어. 떨어진 날개를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 그나마 산산이 바스러져서 이제는 이어 붙일 수조차 없게 되었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이름답고 찬란한 나방을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더 괴로운 일이었다네.

(바) 한 친구는 내게 이런 말을 했어. 나무동치나 바위에 앉아 있는 이 갈색 나방은, 자기에게 새나 다른 짐승이 덤벼들려고 하면 거무스름한 앞날개를 펼치고 아름다운 뒷날개를 드러내 보일 뿐인데, 그 빛나는 커다란 무늬가 매우 이상한 모양을 나타내므로, 새는 겁을 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고……. 에밀이 이 이상한 나방을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부터 나의 흥분은 절정에 이르러, 그것을 꼭 한번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네. 나는 식사 뒤 틈을 얻어 곧 뜰을 건너서 이웃 집 4층으로 올라갔어. 이 4층에 교원의 아들 에밀은 작으나마 제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2점)

- ①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 ②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 ③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와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같다.
- ④ 서술자가 모든 인물들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한 소년이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9. 위 글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2점)

- ① (다)-(가)-(바)-(마)-(라)-(나)
- ② (다)-(가)-(마)-(바)-(라)-(나)
- ③ (다)-(마)-(나)-(가)-(라)-(바)
- ④ (다)-(바)-(가)-(라)-(마)-(나)
- ⑤ (다)-(바)-(가)-(마)-(라)-(나)

☞ 뒷면에 계속

10. 위 글을 읽고 난 학생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2점)

- ① 홍규 :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어.
- ② 영웅 : 한번 저지른 일은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 ③ 예진 :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
- ④ 예정 : 자신의 욕망보다 도덕적 규범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 ⑤ 다연 :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보면서 현실과 소설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서술형4〉 위 글을 바탕으로 ㉠, ㉡에 알맞은 답을 차례대로 쓰시오(5점)

〈나〉	갈등의 종류	〈예밀〉
사실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	㉠	㉡

〈조건〉 ㉡는 ‘~음.’의 형태로 서술하시오.

〈배점〉 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각 1점 감점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 보고 저리 돌려 보고 굵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느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다. 인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체한다.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체 대꾸가 없다. 점점 차 시간이 빠듯해 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인제는 초조할 지경이다. 더 깎지 아니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다. 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좋다는데 무얼 더 깎는단 말이오?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려. 차 시간이 없다니까…….” 노인은 “다른 데 가 사우. 난 안 팔겠소” 하는 통명스런 대답이다.

(나) 이번에는 깎던 것을 솥에 무릎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곰방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고 있지 않은가? 나도 그만 지쳐 버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에, 노인은 또 깎기 시작한다. 저러다가는 방망이는 다 깎여 없어질 것만

같았다. 또, 얼마 후에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 보더니, 다 됐다고 내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되어 있던 방망이다.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가야 하는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따위로 장사를 해 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손님 본위(本位)가 아니고 자기 본위이다.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다보니, 노인은 태연히 허리를 펴고 동대문의 추녀를 바라보고 있다. 그때,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이는, 그 바라보고 있는 옆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눈매와 흰 수염에 내 마음은 약간 누그러졌다. 노인에 대한 멸시와 증오심도 조금 덜해진 셈이다.

(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예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의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 보면, 배가 너무 부르면 다듬이질할 때 옷감이 잘 치이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이살이 퍼지지 않고 손에 헤먹기가 쉽다는 것이고,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라) 옛날 사람들은 흥정은 흥정이요, 생계는 생계이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훌륭한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心血)을 기울여 공예 미술품을 만들어 냈다. 이 방망이도 그런 심정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따위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해 먹는단.” 하던 말은 “그런 노인이 나 같은 청년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었다.

11. (가)-(라)에 나타난 ‘나’의 심리변화로 옳은 것은?(2점)

- ① 갑갑함 → 지루함 → 미안함 → 체념함
- ② 갑갑함 → 증오심 → 체념함 → 허전함
- ③ 불쾌함 → 화남 → 불쾌함 → 허전함
- ④ 초조함 → 화남 → 미안함 → 괴로움
- ⑤ 초조함 → 미안함 → 불쾌함 → 괴로움

☞ 다음 장에 계속

12.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점)

- ① 노인은 꼼꼼한 ‘나’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② 나는 아내의 말을 듣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됐다.
- ③ 노인은 재촉하는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끝까지 방망이를 완성했다.
- ④ 나는 필요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노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 ⑤ 노인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13-14, 서술형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책은 ‘한국 고전 문학 전집’ 같은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줄 물 가운데 한 권이었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다.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처음으로 펴 든 대목은 ‘허생전’이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에 나는 몇 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내게로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 있었다는 것이다.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나)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학 오기 전 국내에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다. 내용 역시 익숙했다. ‘허생’이라는 인물이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력을 쌓은 뒤에 일단 세상에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무협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 책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다)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많은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 두 번 씹으면 다 맛이 빠져 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그 책의 내용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라)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 활동 시간은 없어졌다. 내가 1학기의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의 일원이 되는 것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 준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 준다.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種)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13. 위와 같은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점)

- ①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이 글의 제재가 될 수 있다.
- ② 현실의 이야기에 허구성을 더해 재구성한 산문 문학이다.
- ③ 형식의 제한이 없어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 ④ 글쓴이 자신이 서술의 주체인 ‘나’로,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 ⑤ 전문적 재능이 요구되지 않으며,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서술형5> 글쓴이가 책의 가치를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위 글에서 찾아 아래 문장의 형식으로 쓰시오.(3점)

글쓴이는 책의 가치를 (,)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조건> 위 문장에 단어 2개를 넣어 그대로 작성하시오.

<배점> 가. <조건>대로 서술하지 않을 경우 0점

나. 한 단어만 맞을 경우 1점

다.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각 1점 감점

14. 위 글에 나타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2점)

		㉠	㉡
공 통 점	①	한자로 제목이 되어 있어 거의 손을 대지 않음.	
	②	내용과 구성 방식.	
차 이 점	③	읽은 후 주인공의 이름만 남음.	주人公의 다음이 궁금함.
	④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옴.	한 두 번 씹으면 단맛이 빠져 버림.
	⑤	정신세계가 넓어짐.	품위 있는 문장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

☞ 뒷면에 계속

15. 시제가 다른 하나는?(2점)

- ① 경이는 참 좋은 사람이야.
- ② 그것은 현무가 읽던 책이야.
- ③ 장원이가 교실 창문을 닦았다.
- ④ 지석이의 빵을 먹은 사람이 누구니?
- ⑤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엄마한테 혼났다.

16.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된 것의 개수는?(3점)

〈보기〉

- ㉠ 큰아버지 댁에 다녀왔어요.
㉡ 할머니께서는 꽃을 좋아한다.
㉢ 승호야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해.
㉣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 우리 선생님께는 따님이 있으시다.
㉥ 하온아, 과일을 선생님께 가져다 드려라.
㉦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17. 사동표현이 쓰이지 **않은** 문장 두 개 고르면?(2점)

- ① 새가 먹이를 먹었다.
- ② 누나가 옷을 입히다.
- ③ 아기를 침대에 눕히다.
- ④ 도둑이 순경에게 잡혔다.
- ⑤ 영희가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오후에 승윤이와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 며칠
전만 해도 표를 ㉠못 구했는데 다행히 승윤이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표를 사 놓으셔서 경기를 볼 수 있었다.
비록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지 ㉡않아서 실망스러웠지
만, 모처럼 목청껏 소리를 질렀더니 시험 때문에 우울했던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의 표정은 ㉢좋아 보였다. 어
머니께서 책꽂이에 감춰 두었던 내 성적표를 보신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공부를 열심히
㉣못 해서 성적이 ㉤오르지 못한다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공부보다 야구가 더 좋다.

(나) ‘(㉠)’ 는/은 주어가 어떤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18. (가)의 밑줄 친 ㉠~㉣의 표현이 옳은 것은?(2점)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9. (나)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지수가 웃는다.
- ② 정국이가 아기를 올린다.
- ③ 지민이가 진이에게 업혔다.
- ④ 세형이가 물과 기름을 섞었다.
- ⑤ 수민이가 줄을 반듯하게 맞췄다.

20. 높임법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2점)

- ① 할머니께서 시장에 오셨다.
- ② 세호가 선생님을 뵈러 갔다.
- ③ 재석이가 선생님께 여쭙었다.
- ④ 중국이가 공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 ⑤ 저기 세찬이가 선생님을 모시고 온다.

21. 문장이 옳게 이루어진 것을 두 개 고르면?(2점)

- ① 음식이 전혀 안 맞아요.
- ②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다.
- ③ 우리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 ④ 이 옷은 색깔이 별로 마음에 드네.
- ⑤ 찾으시는 제품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술형6〉 <보기>의 대화가 아래 기자와의 인터뷰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을 높임법에 맞게 서술하십시오(4점)

<보기>

박교수 : 김교수, 구호 활동은 잘 다녀왔나?

이번에 다녀온 곳은 어디야?

김교수 : 지진 피해 지역인 파키스탄에 다녀왔어.

박교수 : 구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김교수 : 어릴 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

학생기자 : 전 세계를 돌며 구호 활동을 하시는 김교수님
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녀오신
곳은 어디인가요?

김교수 : 지진 피해 지역인 파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학생기자 : (㉠)?

김교수 : 어릴 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조건〉 격식체로 쓸 것.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감점

➡ 다음 장에 계속

<서술형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주동문으로 바꿔 쓰시오.(4점)

<보기>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아침에 빵을 먹고, 배가 몹시 아팠다. 깜짝 놀란 엄마는 나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가셨다. 의사 선생님께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니깐 맹장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었고, 상한 빵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것이었다. 엄마는 아침에 상한 빵을 먹게 했다고 나에게 무척 미안해하셨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흰죽을 쑤어서 나에게 먹이셨다.

<조건> 주어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감점

[서술형8,9] <보기>를 읽고 답하시오.

<보기>

앵커: 국제 유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초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초기자: 네. 어제 국제 유가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으로써 가파른 오름세를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데다가 ㉠유가가 투기 세력에 의해 오르고 있어 당분간 이런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술형8> <보기>의 밑줄 친 ㉠을 사동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 의미의 차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6점)

사동표현은 ()이/가 ()되고,
주동표현은 ()이/가 ()된다.

<배점> 가. 위의 문장을 답지에 그대로 쓸 것

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감점

<서술형9> <보기>의 밑줄 친 ㉢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4점)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감점

<서술형10> <보기>를 읽고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6점)

<보기>

㉠ 미술관에 갔다. → ㉡ 미술관에 안 갔다.
㉢ 미술관에 못 갔다.

<조건> (1) ㉡은 ‘안’ 부정문으로 ()에 의한 부정이고
㉢은 ‘못’ 부정문으로 ()에 의한 부정이다.

(2) ㉠을 청유문으로 바꾼 후, 다시 부정문으로 바꾸면 ‘미술관에 ()’ 이다

<배점> 가. 각 2점 배점

나.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감점

22. <눈길-이청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점)

- ① 나는 모친의 유산을 상속받으려 모친을 설득했다.
- ② 나와 모친은 대학입시문제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다.
- ③ 나는 모친의 사랑을 깨닫고, 모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 ④ 아내는 자꾸 노모에게 예전 아들을 떠나보낼 때의 심정을 물었다.
- ⑤ 나는 지붕개량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는 모친의 의사를 받아들일려고 노력했다.

23. <고향-현진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점)

- ① 그는 유곽에서 만난 여자와 재혼을 했었다.
- ② 나는 아버지를 찾으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 ③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본이었다.
- ④ 그는 독립군에게 도움이 되려고 고향으로 돌아갔었다.
- ⑤ 그는 여러 곳을 떠돌다 귀국하여 고향에 들렀지만, 고향은 이미 폐농이 되어 있었다.

24. <서울 1964년, 겨울-김승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점)

- ① 우리 셋은 약속을 하고 선술집 앞에서 만났다.
- ② 등장인물들은 예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 ③ 서울 도시의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 ④ 사내는 집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괴로워했다.
- ⑤ 여관에 묵은 다음날 아침 사내는 죽어 있었고 ‘나’와 ‘안’은 서둘러 여관을 나왔다.

----- <끝> -----

※ OMR카드 마킹 여부와 서술형 답안 작성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24문항)	서술형(10문항)	
55	45	100

선택형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1,2	21	1,3
2	2,3	22	4
3	2,3	23	5
4	2	24	5
5	1	이하	여백
6	1,5		
7	4,5		
8	1,5		
9	5		
10	4		
11	4		
12	1		
13	2		
14	2,3		
15	1		
16	3		
17	1,4		
18	1		
19	3		
20	1		

서·논술형 정답

번호	정답
1	어두워진 산길에서 후들거리는 발끝걸음으로 <u>어둠길 가늠하셨겠지.</u>
2	어린 아이를 화자로 설정함.
3	책만 읽는 바보
4	㉠ 외적갈등 ㉡ 하인리히모어를 경멸하며 용서해주지 않음.
5	글쓴이는 책의 가치를 다리, 통로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다리, 통로, 보약, 길 중 2개만 쓰면 정답)
6	구호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7	나는 아침에 상한 빵을 먹었다.
8	사동표현은 투기세력이 강조되고, 주동표현은 유가가 강조된다.
9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10	(1) 의지,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 (2) 가지 말자